

# “소재·부품 기술 독립에 재정·정책 총동원”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당정청, 백색국가 배제 뒤 첫 대책회의

### 대응 예산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 반영...당정청 협력 강화 정부, 오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WTO 제소 방안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조장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어 "우리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또 이를 뒷받침할 실무 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당내 가동 중인 일본경제전략대책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 등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출범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통해 민관정이 관련 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 개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와 별도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제안에 따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좌장으로 최재성 당 일본특위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일일 점검 대책반을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끌어내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당정청은 우선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수요기업 간의 협력에 대해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소재·부품 산업의 상생 협력 모

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지원의 속도감을 높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인수·합병, 기술 제휴, 해외 투자 유치 등 개방형 기술 획득 방식을 추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 대한 검토는 5일 정부의 종합 대책 발표 과정에서 포함될 전망이다. 조 의장은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의 건강한 미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고 우호국가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외교안보 분야 협력이 의미있겠는가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미뤄온 독도 방어 훈련 실시 검토

## 軍, 이달 내 유력...AW-159 와일드캣 헬기 투입 관심

군이 독도 방어 훈련을 이르면 이달 중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에 내리면서 양국 관계가 '경제전쟁'으로까지 치닫하는 시점에 독도 방어훈련이 검토돼 주목된다. 더욱이 광복절이 있는 8월에 훈련이 진행된다면 그 자체가 주는 대내 및 대외 메시지가 특별한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3천200t급) 등 해군 함정, 해경 함정,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등 항공기가 참가한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전력이 훈련에 참여할 전망이다. 2017년 2월 첫 작전 배치된 AW-159 와일드캣 해상작전 헬기가 독도방어훈련에 처음 투입될지도 관심이다. /연합뉴스

측이 계속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마당에 계획된 훈련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군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을 숙련하기 위해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해군, 해경, 공군 등이 참가하는 독도방어훈련을 해왔다. 작년은 6월 18~19일, 12월 13~14일에 각각 훈련이 진행됐다. 통상 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3천200t급) 등 해군 함정, 해경 함정,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등 항공기가 참가한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전력이 훈련에 참여할 전망이다. 2017년 2월 첫 작전 배치된 AW-159 와일드캣 해상작전 헬기가 독도방어훈련에 처음 투입될지도 관심이다. /연합뉴스

## 정가라온지

# 주승용 남태평양 한국인 징용 희생자 추모

## 바누아투공화국 방문

주승용 국회의장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남태평양의 바누아투공화국과 솔로몬제도에서 일제에 강제 징용돼 희생된 한국인 추모행사 및 빛음 식수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는 외교활동에 나선다. 주 부의장은 국회 대표단을 이끌고 오는 12일 바누아투 공화국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 평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평화기념비 건립과 강제징용 희생자 추모식을 갖는다. 이와 함께 물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태평양 국

가에 빛음 식수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주승용 부의장은 "아직도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생각하며 가슴 속 분통이 터진다"며 "국제컨퍼런스 등을 통해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만행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강제 징용 희생자들을 추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2732억원 소재·부품 기술개발 우선 투입

## 정부, 추경 배정안 의결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1건)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11건) ▲ 추경안 배정계획안(1건) 등이다.

정부가 추경 배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선제적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해지역 지원을 위한 재정 집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도 반영됐다. 앞서 정부 지난 4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 달 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732억원의 증액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 6조6837억원에서 8568억원이 순감한 5조8269억원이 됐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관련 기업 자금 지원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입된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추경에는 경기대처, 민생안정, 안전강화, 미세먼지 저감 등의 사업도 포함됐다"

며 "그런 예산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추경을 통한 '급한 불'을 끄는 조치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대(對)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계획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산업을 지원해 산업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데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린다는 우려도 있지만 인수합병(M&A) 등을 활용하면 그 시기를 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소재·부품 산업 원천기술 개발도 자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이용주 "도쿄올림픽 출전 보이콧 해야"

## 방사능 안전 담보돼야

민주당화당 이용주 의원(여수 갑)은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하거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이 담보되었다고 확인되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도쿄올림픽 출전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핵발전소 사고 이후 뇌출혈은 3배, 소장암은 4배 이상 발생하고 갑상선암, 폐암, 전립선암, 급성백혈병 등 모든 질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 올림픽 때 선수단 식자재로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쓰겠다고 밝혔

는데 아베 총리는 전 세계 각국에서 출전하는 올림픽 선수들을 마루타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세계 2차대전 당시 일본의 731부대는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인 등을 상대로 인체실험을 해 수천명의 목숨을 빼앗은 사실이 있는데, 이제는 전 세계 선수들을 '마루타'로 생각하고 실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